



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능계)

[7월22일~24일]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문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인문·체능계열 문제지는 총 1장 2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포스터 속의 주인공인 루스 세인트 데니스는 무대를 휘어잡았다. 그녀는 인도의 여신으로 등장하여 홀로 춤추며 무대를 장악했다. 나는 그 매혹적인 모습에 넋을 잃었다. 그녀는 장엄했다. 오랫동안 엄격한 청교도 가법으로 훈련된 신앙심 깊은 내게 그 장엄함은 그대로 온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신의 이름으로, 신의 모습으로, 신의 섬광 같은 위용으로 나를 압도했다. 그 순간 내 운명은 결정되었다. 열일곱의 나이에 나는 내가 평생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분명한 순간이었는지 너무도 확연하게 알고 있다. 온 우주가 공명하듯 내게 밀려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번개처럼 분명한 섬광이고,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계시였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 춤을 보는 순간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가장 나다운 것들이 요동을 쳤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춤꾼이었고, 춤추며 살게 운명 지어졌으며, 춤이야말로 내 기쁨과 즐거움이며 우주적 역할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 확연한 깨달음, 너무도 분명한 내적 공명, 열일곱의 내가 맛본 판타지는 내 영혼에 찍힌 각인이었다. 너무도 뜨겁고 강렬하고 황홀하여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감격이었던 것이다. 바람과 매가 부딪히듯 아무 소리도 없이 나는 푸른 하늘을 솟구쳐 오르다가 하면, 지금껏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한 번도 그렇게 쳐다본 적 없는 이 세상을 말이다. 어찌면 나는 낚싯바늘에 단단히 입이 걸린 고기 같았다.

[나]

얼마 전 중국 청두에 갔다가 ‘모죽’이라는 대나무에 대해 들었다. 모죽은 씨를 뿌리고 5년 동안은 작은 순이 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 해가 끝나갈 무렵의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도 몇십 센티미터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거의 25미터에 이르도록 큰다는 것이다. 신기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모죽은 그 5년 동안 자라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키우며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때가 오면, 다른 어떤 식물보다도 빨리 그리고 높이 커나간다. 나는 우리의 인생이 이 모죽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물을 한번 끓여 보라. 섭씨 100도에 이르면 아무리 열을 가해도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면 이내 식어 버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을 가하면 물은 기체로 변해 하늘로 올라간다.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아무 성과 없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이 어렵다. 10만km 노력해서 10만km의 성과가 꼬박꼬박 나온다면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노력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섭씨 100도의 물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지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 시도해 보다가 결국 포기한다. 하지만 이 구간을 묵묵히 버티며 더 뜨거운 땀을 쏟아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이다.

[다]

한번은 군부대에 강연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언제나처럼 형식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대를 앞둔 병장이 말하기를, 자기는 집안 형편도 어렵고, 소위 말하는 스펙도 변변치 않고, 학벌도 시원찮은데, 자기 같은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자 병사들이 하나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뭔가 이상하다, 이런 직감들이 들었나 봐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란 듯이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앞에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나치의 수용소와 소련의 그 악명 높은 수용소 군도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들은 ‘곧 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말 거야. 영원히 여기를 떠나지 못할 거야’라고 믿는 사람도 아닙

< 뒷면에 계속 >

니다. ‘여기서 나가는 쉽지 않아. 어쩌면 나치는 영원할 수도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어. 나는 오래지 않아 가스실로 끌려가 비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면도부터 해야겠다. 수용소에서 누가 본다고 면도를 하냐고? 그럼 뭘 하지? 가만히 누워서 죽을 때를 기다리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먹을 물도 부족한 판에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합니다. 개인위생을 챙기고 하루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허황된 자존심에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라]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 년(億年) 비정(非情)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마]

장을 볼 때 일반 화장지 대신 무형광물질 티슈를 사고, 탄산음료를 집었다 생과일주스로 바꿔 들었다. 몇 백 원 더 비싸지만 부드러운 국산 콩 두부를 먹었다.

생필품을 절약하지 않으면 돈 모으기가 힘든데, 씹씹이가 커 눈만 높아진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번기에 앉아 화장지를 끊을 때마다, 부드러운 두부 조직이 식도를 건드릴 때마다, 전에 없는 설렘과 만족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런 ‘기분’도 만약 구매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걸 ‘계속하고’ 싶었다. 이 정도는 낭비가 아니라 경제적인 행복이라고. 이걸 오래 쓸 거니까, 이걸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하는 식의 근거로 분수에 맞지 않는 물건을 골라 담았다. ‘아주 조금 나은’ 물건에 대한 욕구. 그냥 다리미가 아닌 스팀다리미, 보통 드라이기가 아닌 음이온드라이기, 일본 생맥주, 핸드 드립 커피, 고농축 에센스에 폭 절은 마스크 팩……. 한 번 높아진 눈을 다시 낮추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직장 동료들의 조언도 한몫했다. 그녀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식의 고집과 풍습을 공유했다. 다른 건 몰라도 가방은 비싼 걸 해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화장품은 좋은 걸 써야 한다. 항상 입는 코트는 유명 브랜드로 걸쳐야 한다. 여자는 머릿결이 생명이다. 피부가 명함이다 등. ‘무엇 무엇만은’의 목록은 점점 늘어갔다. 모든 게 중요하고 많은 게 필수였다. 소비는 내가 현재 대도시의 왕성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다. 나 역시 그 신진대사에 속해 있다는 느낌. 그리하여 뭔가 지불할 때, 나는 더 잘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 암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딱 한 뺨만……. 9센티미터만큼이라도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랐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많은 물건 중 내게 ‘딱 맞는 한 뺨’은 없었다는 거다. 모든 건 늘 반 뺨 모자라거나 한 뺨을 초과했다. 본디 이 세계의 가격은 욕망의 크기와 똑 맞아떨어지지 않게 매겨졌다는 듯. 나는 늘 한 뺨 더 초과되는 쪽을 선택했다.

[바]

물론, 공부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공부가 아니라 시험이 어려운 것이다.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경쟁이 버거운 것이다. 공부 그 자체는 재미있는 두뇌 및 신체 활동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따라 배워 가면 수월하다. 그런데 모든 공부가 점수 따기로 환원되다 보니, 그 본질을 망각하고 편차치에 집착한다. 한국 학생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아예 학습 의욕을 잃는’ 것도, 공부 본래의 즐거움을 잃고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이다.

공부는 세상의 발견이고 삶의 연습이다. 삶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오롯이 마음을 향해 내면을 닦는 수행(修行)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잠재력을 두드리는 것이 학문의 보람이다. 배움의 인연(학연) 속에서 새로운 자기를 만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만들어 간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확신할 때, 인간은 성장한다. 삶에 대한 의지는 삶에 대한 경외감에서 솟아 오른다.

[문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